

정보주체의 온라인 활동기록 통제 기술



구분	2022	2023	2024	2025	2026
정보주체의 온라인 활동기록 통제 기술	검색, SNS, 쇼핑 등 서비스 맞춤형 온라인 활동기록 통제 기술 개발 및 검증				
		개인위치정보 자율 통제 기술			
			온라인 활동기록 통합 관리 플랫폼(3년)		

● 기술 세부내용

-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온라인에서 수집되는 개인 행태정보 등에 대한 수집·추적 방지 기술 개발
 - 온라인 상의 개인 행태정보 수집을 방지하고, 개인 행태정보의 추적을 승인 또는 중단 (Opt-Out) 할 수 있도록 지원
 - 실시간으로 개인 행태정보 접근시도를 탐지·차단하거나, 웹페이지상 행태정보(쿠키, 스크립트, 위젯, 픽셀) 추적 기능을 탐지하는 기술

● 표준화 및 제도화 추진

- 온라인 활동 관련 행태정보 수집·관리 및 파기에 대해 규제준수, Legacy 시스템 및 서비스들과의 연계를 고려한 표준화 모델 수립
- 온라인 서비스 유형별로 수집되는 개인 행태정보 유형, 정보주체가 행태정보 수집 여부를 통제하는 방법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

16

정보주체
권리구제
실효성 제고

-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정보주체 권리구제 방법인 침해신고, 분쟁조정에 대해 명확한 절차 및 구속성 부족 등 실효성 문제 대두
- 법 개정을 통해 분쟁조정 시,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위에 사실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추진

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‘개인정보 보호법’ 개정 추진 (=> 마이데이터 관련)

- 일정 수준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능력을 갖춘 자에게로만 정보 전송을 허용
- 동의 또는 계약에 따라 처리된 정보로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정보의 경우 전송대상에 포함 (수집한 개인정보 기초로 분석, 가공하여 별도 생성한 정보는 제외)
-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담보하면서도 다양한 기관 지정이 가능하도록 지정제를 도입 하되, 지정기준은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·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

향후 대응

: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자·수신자 범위, 전송방법 등의 세부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추진

(개인정보보호위원회) 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기준

제 5조(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)

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·감독하여야 하며,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·관리하여야 한다.

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·변조되지 않도록 별도의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 보관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백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
⇒ 이러한 법에 해당하여 정보주체의 정보가 수집되고 저장되어야 한다.

개인데이터저장소(PDS)

: PDS는 안전하고 구조화된 형태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주요 데이터를 저장, 관리,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, 개인정보에 대한 집중적 통제권한 부여가 가능하다. 또한, 이용

자의 데이터는 공동 저장소 또는 외부의 다중분산저장소에 저장하며, 대부분 API(Application Program Interface)를 통해 접근하고 다른 이용자와 일정부분 공유할 수 있다.

=> 영국의 Mydex

OSANO의 정보주체의 접근 요청 수행 과정 자동화

- 이용자들은 각 서비스마다 본인에게 보장되는 자기정보통제 권한에 대해 일일이 파악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.

=> **osano**는 각각의 정보주체에게 개별 서비스에 요구할 수 있는 데이터 열람권, 수정권, 삭제권이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보여주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. **정보주체의 접근 요청(Data Subject Access Request; DSAR)**을 입력할 수 있으며 해당 **DSAR 수행 과정을 자동화**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개별 데이터와 매핑시켜준다.

요약 & 세부정리

정보주체의 온라인 기록 통제 기술은 '마이데이터'와 연관성이 큼

- 마이데이터 : 데이터를 정보주체가 관리하는것. 정보주체가 지정한 제 3자에게 데이터를 보내달라고 요청이 가능함.
- 마이데이터는 금융권에서 사용

PDS

- 마이데이터에는 개인데이터저장소(PDS)가 있는데, PDS는 개인이 주도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저장소의 역할을 함.
- 개인정보를 자신이 직접 집중적으로 통제할 수 있음

현재 PDS는 기업에서만 진행되고 있고,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. + 금융권에서만 이뤄지고 있음

⇒ 국가 차원의 개인데이터저장소 프레임워크 확립하려고 하는 것이 정보주체의 온라인 기록 통제 기술이 아닐까 예측함.